

“가성비 vs 성능”...폭염 속 ‘생존템’ 손선풍기



광주 서구 한 생활용품 매장에 비치된 손선풍기.

1만원대 ‘실속형’부터 10만원대 ‘고급형’까지 다양 냉각 기능 프리미엄 제품 증가...소비 양극화 뚜렷

“집에서는 전기요금에 걱정되고, 밖에서는 더위를 피해야 하니 손선풍기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전남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손선풍기가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관련 시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소비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와 냉방비 부담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동시에 장시간 사용을 고려해 배터리 성능과 냉각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면서 가격대별 시장이 뚜렷하게 나

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 생활용품 매장에는 손선풍기를 고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출퇴근길 잠시 사용할 제품을 찾는 직장인부터 자녀 등하교용 제품을 구매하려는 학부모까지 구매층도 다양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무게와 배터리 지속 시간, 바람 세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구매 여부를 고민했다.

일부 시민은 제품을 직접 손에 쥔 채 작동 버튼을 눌러보고 바람 세기를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러 제품 앞에서 고민하던 한 시민에게 매장 직원은 곧바로 다가가 제품별 차이점을 설명했다.

직원은 “이 제품은 가격 부담은 적지만 기본적인 사용에 적합하고, 다른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커 장시간 외부 활동을 할 때 좋다”며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춰 제품 선택을 도왔다.

해당 매장에서는 특히 1만원 안팎의 저가 제품이 부담 없는 가격을 앞세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남구의 한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 마련된 손선풍기 매대 역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장 한쪽에는 최근 출시된 대용량 배터리 제품부터 강력한 모터 성능을 앞세운

제품, 저소음 기능과 냉각판을 활용한 쿨링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과거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휴대용 선풍기로 여겨졌던 손선풍기가 이제는 배터리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소형 가전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대도 5만원 이상 제품부터 10만원대 제품까지 형성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예전에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올해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 배터리 용량을 먼저 보게 됐다”며 “가격과 성능을 함께 비교하면서 구매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냉방 관련 지출을 줄이려는 것도 손선풍기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이동 중 더위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손선풍기를 선택하면서, 과거 단순한 여름철 생활용품으로 여겨졌던 제품이 폭염 속 일상을 버티기 위한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소비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손선풍기를 여름철 단소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사용 목적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폭염과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성비 제품과 고기능 제품 수요가 함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 ‘로컬 맛집 성지’ 떠오른다

로컬 인플루언서 ‘슈가토끼’와 디저트 브랜드 발굴 14~27일 ‘디저트 마블’ 팝업...스탬프 투어 등 진행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전남광주 지역 디저트 맛집들이 백화점 한자리에 모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지하 1층 특설매장에서 지역 인플루언서 ‘슈가토끼’와 함께 ‘디저트 마블 with 슈가토끼’ 팝업스토어를 열고 지역 디저트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맛집과 로컬 브랜드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영향력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와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SNS에서 전남광주지역의 맛집과 디저트 콘텐츠를 소개해온 ‘슈가토끼’가 직접 참여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뿐 아니라 새로운 디저트 맛집도 함께 선보인다.

팝업에는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슈가토끼가 엄선한 13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한다.

광주 대표 바게트를 선보이는 ‘프렐



투알’을 비롯해 과일산도로 알려진 ‘케주베이크리’, 수제 마카롱 전문점 ‘아싸롱’, 영국식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엠버스 베이커리’, 누크레케 잘 알려진 브랜드뿐 아니라 새로운 디저트 맛집도 함께 선보인다.

행사명인 ‘디저트 마블’은 주사위를 던져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보드게임에서 착안했다. 다양한 나라의 디저트

를 맛보며 지역 곳곳의 숨은 맛집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디저트를 구매한 뒤 도장을 모으는 ‘디저트 마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며, 스탬프 개수에 따라 즉석 스क्र래치 쿠폰과 티라미수 케이크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스탬프를 7개 이상 모은 고객은 럭키드로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은 오는 27일 ‘슈가토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팝업을 통해 지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디저트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지역 맛집을 지역 기반 인플루언서와 함께 소개하는 상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며 “스탬프 투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의 다양한 디저트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 브랜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는 12일 ‘2026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단체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임직원·고객, 헌혈로 나눔 동참 캠페인 3회로 확대...참여자에 무료 커피 쿠폰 등 제공

폭염과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나섰다.

(주)광주신세계는 12일 ‘2026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과 일반 고객들이 참여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헌혈에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최근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8월 들어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면서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헌혈은 일정한 혈액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방학과 휴가철 등 헌혈 참여가 감소하기 쉬운 시기에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게 광주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함께 헌혈 참여자에게 무료 커피 음료 쿠폰 2매를 추가로 제공했다.

임직원뿐 아니라 백화점을 방문한 일반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운영했다.

광주신세계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연 2회 진행하던 단체헌혈을 올해는 총 3회로 확대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광주신세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초대석



서영호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영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이달의 이슈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